

## 항몽유적에서 보내는 8월의 편지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 합니다.

최근 ○○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 제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은 13세기 말엽 원나라 침략에 맞서 끝까지 항쟁을 벌인 고려무인의 정서가 서린 삼별초군이 마지막 보루였던 곳입니다.

8월 째는 더위에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겠지만, 광복절 의미를 되새겨 항파두리 항몽유적을 방문해 보는 것도 뜻 깊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항파두리 항몽유적에 나들이 오셔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은 8월에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